

## 혈액투석 환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대 후복막강 혈종 1예

여수전남병원 내과, 가정의학과<sup>1)</sup>

손대용\*, 지황룡, 신근옥, 박승빈, 구 철, 이제휴<sup>1)</sup>

장기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출혈성 경향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위장출혈이나 뇌출혈 등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부위로의 대량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연자 등은 혈액투석을 시행 받는 환자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대 후복막강 혈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약 13년전 부터 주 3회 혈액투석을 시행 받아오던 50세 남자환자가 내원 당일 새벽 갑자기 발생한 우측복부 통증 및 복부팽만감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내원당시 이학적 검사상 환자는 급성 병색을 보였고 기면성 의식상태였으며 우측복부의 저명한 압통과 복부의 팽대가 있었고 혈압 70/40 mmHg, 맥박 분당 120회, 체온 35°C 이하, 호흡수 분당 24회였다. 혈액검사상 혈색소 6.3 g/dL, 백혈구 수 9,900 /mm<sup>3</sup>(다형백혈구 85%), 혈소판 수 114,000 /mm<sup>3</sup>였고 일반화혈검사상 AST/ALT/alkaline phosphatase 19/39/79 u/L, Na/K 136/5.2 mEq/L, Ca/P 8.8/3.8 mg/dL 였으며 복부 초음파 및 CT 검사상 우측 신주위, 후복막강 및 골반강에 걸쳐 거대한 혈종의 소견이 있었고 하대정맥, 대동맥 및 소장의 좌측편위의 소견이 있었다. 응급수혈과 지혈제, 동결 침전제, conjugated estrogen 등을 투여하였고 환자는 제 3병일째부터 혈압, 맥박 등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투석 횟수를 증가시켜 시행하였다. 이후 측복부 압통과 복부팽만도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입원 14일째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상 혈종의 크기가 감소한 소견이 있었으며 더 이상의 출혈의 소견이 없어 퇴원하였고 현재 외래에서 혈액투석요법을 시행중이다.

## — F-100 —

###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투석 방법에 따른 B형 간염의 진행과 예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양 해주\*, 이 경주, 김 경아, 송 준호, 이 승우, 김 문제

말기신부전으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투석중인 환자로 HBsAg 양성인 간염과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투석 방법(혈액투석(HD), 복막투석(PD))에 따라, 간기능의 변화 및 예후를 알고자, 대상환자 22예(HD 12예, PD 10예)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하였다.

1. 대상환자는 22예(HD 12예, PD 10예)로 평균나이는 47.6±8.4세이고, 남자는 12명, 여자는 10명이며, 평균투석 기간은 28.0±15.5 개 월 이었다.

2. HD 및 CAPD의 두 군 사이에 투석의 기간, 평균 연령, 헤마토크릿, ALT, 총 단백량, 알부민 등의 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

3. HD 환자군의 추적 검사상 HBsAg이 음전이 된 예는 없었으며, 2예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CAPD 환자군에서 HBsAg이 음전이 된 예는 없었으며, 2예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하였고, 1예에서 간경변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4. 혈청 ALT수치를 기준으로 간기능 장애를 평가하였을 때, 투석을 시작시, HD군에서 2예, CAPD군에서 3예로 증가되어 있었으나, CAPD군에서 간경변에 따른 간부전으로 사망한 1예를 제외하고, 전 예에서 투석 시작 6개월 이내에 정상수치로 호전되었다. 투석 시작 전 ALT가 정상인 군에서 투석 후 ALT가 증가된 예는 HD군에서 1예가 있었으나, 추적 검사상 바로 호전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투석방법에 따른 B형 간염의 예후와 진행에는 차이가 없어 어떤 투석 방법이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더 간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 좀더 많은 예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